스포츠 포커스

9년 연속 3할 打… 打… 打…

“내년엔 꼭 KS우승 이끌겠다”

〈한국시리즈〉

한국프로야구 최초 10년 연속 3할타 도전 기아 장 성 호 선수

지난 88년 어느날 초등학교 4학년생인 코흘리개 소년은 우연히 야구부원을 모집한다는 한 신문 광고를 봤다.

아버지를 졸라 야구부원 테스트를 받았고, 그해에 멋진 야구복을 입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볐다.

소년이 야구의 길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아들의 자질을 키워냈다.

변변한 야구 연습장 하나 없던 시절, 집 앞 대추나무에서 따낸 대추를 야구공 대신 아들에게 던져줬다.

소년은 손톱만한 대추알에 방망이를 휘둘렀고, 10년이 흐른 뒤부턴 3할대를 치는 왼손 교타자로 우뚝섰다.

바로 98년 이후 9년 연속 3할타율을 때려낸 장성호(29·KIA)의 야구 입문기다.

야구공 대신 대추로 타격 연습

타자가 3할을 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올해에도 3할 이상을 때려낸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하물며 9년동안 3할을 치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25년 한국 프로야구사에서도 9년 연속 3할은 삼성 양준혁(93~2001) 단 1명 뿐이다.

그리곤 올 시즌 장성호가 양준혁과 타이기록을 세웠다.

양준혁은 지난 2001년에 3할타 연속 행진을 마감했지만, 장성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 시즌에 3할타를 기록한다면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꾸게 된다. 장성호는 9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행진도 덤으로 얻었다.

세자릿수 안타 행진은 ‘덤’

한국 프로야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양준혁, 마해영, 이승엽, 김한수만이 세운 대 기록이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그도 대스타의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지난 96년 프로에 입문한 그는 입단 3년째인 98년 145안타를 터뜨린 뒤 올해까지 매년 100안타 이상씩을 뽑아냈다. 개인 최다는 지난 99년 달성한 166안타.

굴곡없는 꾸준한 성적은 홈런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3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그는 9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행진도 이어갔다.

하지만 장성호에겐 3할타율이 더 없이 소중한 기록이다.

장성호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모든 기록이 중요하지만, 10년 연속 3할타를 때리고 싶다” 며 내년 시즌의 활약도 자신했다. 사실 지난해 4년간 FA 42억의 대박을 터트린 그는 자유계약 첫 해인 올 시즌 초 지독한 슬럼프를 겪었다.

5월 3일 그의 타율은 0.192였다.

구단 안팎에서는 ‘FA 먹튀’ 라는 좋지 않은 말들도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올 정규시즌을 0.306으로 마감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3할타의 비결은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다.

장성호는 “타격 실력은 백지장 한장 차이다” 면서 “중요한 것은 할수 있다는 자신감” 이라고 말했다.

또 타석에 들어설 땐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 힘들어 진다. 다만 초구만큼은 노려치는 편” 이라면서 “개인적으로 힘든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잊고 상대 투수가 던진 공만을 바라본다” 고 덧붙였다.

장성호는 요즘 팀내에서 후배 이용규와 가장 친한 사이다.

자신과 야구 코드가 맞고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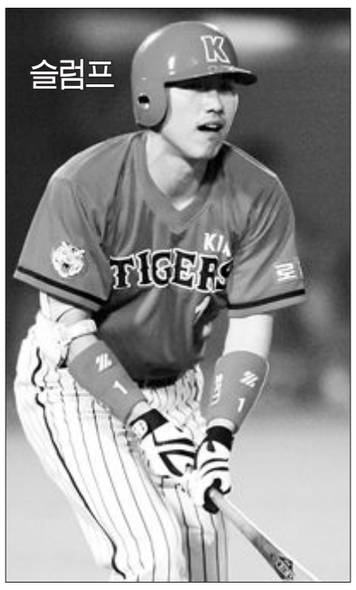
평소 독방을 고집하던 장성호는 올 시즌 막판 한달전부터 이용규와 룸메이트를 자청, 원정경기마다 같은 방을 쓰고 있을 정도.

후배 이용규와 찰떡궁합

장성호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일단 10년 연속 3할타자가 되는 것이고, 내년 시즌에 팀을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끄는 것” 이라면서 “돈은 평생 쓸 만큼 벌었으니, 돈 욕심은 없고 명예로운 야구선수로 남고 싶다” 며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에 대해서는 “시즌 초부터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력을 이탈했고, 그 영향으로 포스트시즌서는 팀 전체가 많이 지쳐있었다” 면서 “하지만 모든 팀원들이 하나로 뭉쳐 두산과의 4위 다툼에서 승리했고, 준플레오프서도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쉽지만 만족한다” 고 한해를 평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슬럼프

▲1할타로 부진하던 5월 3일 잠실 두산전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부활

▲부활을 알리는 스리런포를 작렬한 6월 16일 LG전서 그라운드를 돌며 환호하고 있다.

지난 9년 주요기록

연도	안타	타율
98	145	0.312
99	166	0.342
00	146	0.324
01	152	0.311
02	165	0.343
03	150	0.315
04	142	0.300
05	139	0.300
06	136	0.306

■ 장성호는 ?

▲생년월일=1977년 10월18일
▲신체조건=184cm/85kg
▲가족관계=부인 진선미씨와 1남1녀(우진, 서진)
▲출신교=충암초-충암중-충암고
▲별명=스나이퍼
▲취미=음악감상
▲입단연도=1996년
▲통산성적=타율 0.309, 1천464안타, 170홈런, 735타점, 98년부터 9년연속 3할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시판부(062)222-8111

길공인중개사사무소 | 베이비아울렛 | 산그린황토산업 | 구떼사브&프렌치 | 전갑술한방의원 | 원당감자탕광주2호점 | e-쁘지오 두암점
원일인쇄 | 주비 | 혜룡보양탕 | 토탈카세차장 | 미가 | 24시통뼈감자탕·찜 | 벵크공인중개사
백운계곡갈비 | 본가신토불이삼겹살 | 아지매 | 백제의뜰 | 완도세꼬시 | 한우리마트 | 금지게공인중개사 | 만수무강한복대여점 | 형운결혼정보사
서울의원 | 조아식당 | 러브유통 | 상일리베가구 | 고품격국제결혼전문회사 | 지산농협가마지점 | 초가집숯불구이 | 광주M-Training Center | 팔쥐네팔죽
영식당 | 수궁식당 | 한백년결혼정보 | 닭토랑숯불바베큐 | 담양전통참숯불돼지갈비 | 삼삼다방 | 영화루 | 한샘월드키친프라자 | Sexy한그녀헤어샵
제일숯불갈비 | 삼화전자 | 월출도사백마장군 | (주)세한(초당) | 광양백운산흑염소숯갈비 | 이가원 | 계절식당 | 넥서스전해환원수 | 코코바바두암점